

넷플릭스 '한국 웹툰IP 전성시대'… 국내 넘어 글로벌 인기

탄탄한 스토리라인·기존 팬덤 장점
日·싱가포르 등 넷플릭스 상위권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에서 한국 웹툰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지난달 공개된 레진코믹스 웹툰 원작 드라마 'D.P.'가 국내 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공개된 네이버웹툰 원작 드라마 '스위트홈'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3위 등 각종 기록을 갱신하며 성과를 냈다.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화된 한국 웹툰 IP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전 세계에서 선전하는 '웹툰 원작 드라마들'

지난 29일 공개된 후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D.P.'는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된 김보통 작가의 'D.P 개의 날'이 원작이다. D.P.는 공개 사흘째인 지난 30일부터 국내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D.P.가 큰 인기를 끌자 이재명·홍준표 등 대선주자들도 드라마를 인용하며 군대 부조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난 6

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드라마 내용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 원작인 스위트홈은 영상 콘텐츠 순위 제공 사이트인 '플릭스파트롤' 기준 2020년 12월 25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3위, 미국 3위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넷플릭스 TOP 10이 집계된 이래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미국 TV 프로그램 TOP 10에 진입한 것이다.

와이랩의 '신의나라: 버닝헬'은 원작으로 한 '킹덤'도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플릭스파트롤에 따르면 킹덤의 시즌 2인 '아신전'은 지난 7월 25일 기준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가운데 전 세계 시청 순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8국에서는 1위였고 일본에서 1위, 프랑스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9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영화 시청 순위가 집계되는 83국 중에 68국에서 10위 안에 들며 한국 웹툰 I



지난 2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레진코믹스 원작 드라마 'D.P.'가 국내 콘텐츠 1위를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P의 저력을 입증했다.

◆가열되는 국내 OTT 주도권 경쟁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9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등 자체 콘텐츠 제작 시도, 글로벌 콘텐츠 공룡인 디즈니의 OTT 진출에 대한 위기감도 감지된다.

쿠팡의 OTT 자회사 쿠팡플레이이는 월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기존에는 자체 콘텐츠가 없었지만 지난 4일 SNL 코리아를



하반기에는 네이버웹툰 원작 드라마 '지옥'이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시작으로 김수현·차승원 주연의 드라마 '어느 날', 수지가 출연하는 드라마 '두 번째 안나'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도 국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운영하는 모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는 11월 디즈니플러스가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넷플릭스, 웹툰 IP 활용한 작품 계

속 만든다

이처럼 OTT 후발주자들이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넷플릭스가 꾸준한 성과를 올리는 한국 웹툰 IP의 드라마화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웹툰 IP의 경우 이미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구성돼 있고 기존 팬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웹툰 IP를 활용한 콘텐츠들의 경우 다른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한국 제작비의 경우 미국, 유럽 등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은 '가성비 높은 제작소'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콘텐츠 로드쇼를 열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콘텐츠에 총 7700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하반기에는 네이버웹툰의 '지옥'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옥은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6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라임타임 부문에 한국 드라마 중 최초로 초청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영화 '부산행' '반도'를 연출했던 연상호 감독과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원진아, 양의준, 김도윤, 김신록, 류경수, 이레 등이 출연한다. 지옥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깊어지는 취준생 한숨… 시중은행 공채 '깜깜 무소식'

은행, 하반기 채용 규모·시기 미확정
행원 공채 보다 IT·데이터 중요성 부각



해마다 하반기에 세자릿수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면서 고용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와 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확산에 따른 점포 축소 등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올 하반기 공채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중 공채를 실시하면서 신입직원을 채용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공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행원의 공개채용보다는 정보기술(IT)·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시채용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

다"라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원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절차가 필요한 공개채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고심과는 달리 국책은행과 중앙은행에서는 최근 공개채용에 나서면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서류 심사 이후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100명 안팎이다. 수출입은행(40명), 한국은행(50명) 등은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들도 공채 일정을 진행하면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는 8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두 은행은 지역인재 전형, 일반전형을 통해 두 자릿수 규모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의 담당 직무로는 개인·기업 고객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디지털금융 등이다.

또 DGB대구은행은 6급 신입행원을 오는 16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일반금융·ICT 2개 부문 채용에 나서며, 대구·경북 소재 대학 출신은 지역인재, 그 외 지역 대학 출신은 일반인재로 구분해 채용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중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려에 나서고 있다. 오는 8~9일 양일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주제는 '청년의 꿈, 금융이 열다'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권 55개사 등이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8일엔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현직자의 토크콘서트와 증권사(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공기업(예금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보험사(교보생명·삼성생명·DB손해보험 등)의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이영석 기자 ysl@

쌍용정보통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공급계약

총 사업 예산 687억

쌍용정보통신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쌍용정보통신은 KERIS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 개발 2 단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

하는 건으로, 1차년도 계약 금액은 당사의 사업비중인 48%를 반영한 72억 원 규모다. 또한 진행 사업은 장기계속(3년) 계약으로 총 사업 예산은 687억 원이다. 2~3년차 계약금액은 예산 집행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 중 쌍용정보통신의 계약금액은 당사 지분 48%를 반영한 총 329억 원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쌍용정보통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지원 ▲지능형 멀티클라

우드기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이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세대 나이스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다.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재외한국학교, 대학·전문대학(400여 개)의 새로운 교육정책 지원 및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강준혁 기자

LGU+, AWS 클라우드로 5G 지연시간 단축
이터 센터, 코로케이션(co-location) 공간, 수요 고객 사이트에 제공하는 완전관리형 서비스다.

이번 실증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서버 구축·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5G 서비스의 지연시간 단축과 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AWS Outposts는 일관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해 동일한 AWS 인프라, AWS 서비스, API 및 도구를 모든 데

/강준혁 기자